

# 화순적벽버스투어 관람객 올해 첫 2만명 '돌파'

2만번째 관람객에 상품 증정해 3월 첫 운행 시작 적벽 홍보 총력 사전 예약 없이 현장서 매표 가능 12월1일 운영 종료 월·수요일 휴무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 관람객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화순적벽을 찾아준 2만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를 펼쳤다.

이날 '2만번째 관람객' 영예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화순적벽을 찾은 이복순씨로, 이씨에게는 화순적벽버스투어 홍보물인 트레블파우치, 트레블세면키트, 보냉백 등의 상품이 증정됐다.

화순 제1경인 화순적벽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왔다는 이씨는 "화순적벽이 가을에 절경을 이룬다고 해서 멀리서 마음 먹고 왔는데, 좋은 선물까지 받게 돼 정말 기쁘고 좋은 기억을 선물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는 적벽서들(현장예매)과 적벽투어(인터넷예약)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된 적벽버스투어는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 행사와 대도시 관광박람회 등에 참여, 화순적벽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화순적벽투어를 시작한 이래 적벽서들로만 한 해 2만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적벽서들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매표



화순적벽버스투어 관람객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2만번째 관람객의 영예를 안은 이복순(왼쪽)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가 가능하고 매주 화·목·금·토·일요일 운영한다. 적벽투어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토·일요일 이용할 수 있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화순적벽버스투어는 앞으로 약 한 달 후

(12월1일)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가을 단풍이 물든 화순적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확대 담양군, 2자녀 이상 대상

담양군은 관내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도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담양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산불진화대·감시원 활동 개시 나주시, 가을철 산불 선제 대응

나주시는 11월부터 12월 15일로 지정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해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진화대원은 22명, 산불감시원은 29명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날 발대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 무전기·GPS단말기 사용법, 산불 초기 진화 및 고립 시 응급조치법 등을 사전 교육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인접 지역 무단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불 초동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불감시원은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유사시 나주시·화순군·영암군에서 공동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헬기는 나주대교 하부에 배치돼있다.

임진광 나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가을철엔 농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 산림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림 보호와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겨울철 밀렵 집중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내년 3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특히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장성군 소재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4100마리를 불법 보관한 자를 적발해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된 사례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찰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은 "이번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자연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지난 2일 화순군 동면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3회 면민의날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무신 명중차기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동면 면민의날 경로위안 잔치

화순군 동면이 지난 2일 동면초등학교에서 제33회 면민의날 및 제28회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동면번영회(회장 박연)가 주최하고 동면노인회(회장 이준배)·동면청년회(회장 신도원)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신정훈 국회의원, 강종철 부군수,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기관·사회단체장, 면민, 출향인사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풍물 및 난타 공연으로

흥을 더하고 이어 기념식, 체육행사, 민노래자랑 등 각종 공연과 음식 공유를 통한 즐거운 화합의 시간으로 치러졌다.

이날 면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부문 조영덕 전 면장과 교육문화체육 부문 공적식 작곡가, 장수상은 김양임, 공적희씨가 수상했다.

체육경기 종합우승은 구암2마을, 준우승은 농소마을, 3위는 구암1마을이 차지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영광군, 저소득층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

### 60세 이상 대상

영광군은 요실금 치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했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

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나 실손보험금 수령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환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 한해 신청 전 지출한 치료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50-480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 치료를 받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